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박 병 선

(대구한의대학교)

본 연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와 자살성(Suicidality) 간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노출 모델(Stress exposure model)’과 ‘스트레스 유발모델(Stress generation model)’을 근거로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를 설정하였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재귀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 대한 성별과 연령집단별 비교를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에서는 자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직접적인 경로 및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스트레스 노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과는 반대로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자살성으로의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인과 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우울과 스트레스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분석 결과의 차이는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위 집단별 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스트레스, 우울, 자살성, 비재귀경로모형, 다집단분석

I. 서론

최근 OECD의 자살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 주요 나라들의 자살에 따른 사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10).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31.2명으로 지난 1995년에 10명 이상으로 나타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0)¹⁾.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은 가족은 물론 사회 및 국가 전체의 고통과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하시켜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와 같은 자살의 증가로 인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의 자살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많은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다(이민아 외, 2010). 그러나 자살은 그 주제의 특성상 경험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 자살에 이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살 시도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민아 외, 2010).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살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살생각(suicide idea)이나 자살태도(suicide attitudes)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높다(박경, 2009).

자살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우선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강상경, 2010)이 제시되고 있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우울(강상경, 2010; 박재연 외, 2010; 서한나, 2011)이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박재연, 2009; 엄태완 외, 2008)와

1)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은 11.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2.6명)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4.9명), 영국(5.8명)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독일(9.1명), 미국(10.1명)이나 스웨덴(11.0명), 뉴질랜드(11.2명) 등의 나라들은 OECD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앞선 나라들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중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19.4명)이나 헝가리(19.6명)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가족지지 및 가족관계(이민아 외, 2010; 최인 외, 2009), 빈곤(이소정, 2010)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들 중 자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스트레스와 우울의 효과는 자살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아닌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작용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스트레스와 우울을 유발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자살로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고 (Osgood et al., 1986), 실제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강승호 외, 2011; 모지환·배진희, 2011; 장미희·김윤희, 2005).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을 함께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 살펴보면,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독립적인 변수로 설정하거나(김영주, 2009; 모지환·배진희, 2011; 서인균·고민석, 2011; 장미희·김윤희, 2005; 허정은·박경, 2004), 혹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스트레스 노출모델(Stress Exposure)의 관점²⁾(강승호 외, 2011; 김재엽 외, 2009; 김현순·김병석, 2007; 박재연 외, 2010; 서한나, 2011; 우채영 외, 2010; 이미애·남기민, 2007; 차미영·강승호, 2010; 하정희·안성희, 2008)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스트레스 노출 모델에 근거한 우울과 스트레스에 대한 일방향적 관계의 설정은 생활사건이 우울증상에 선행하며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에 노출되는 것이 우울을 유발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김영란·이영호, 2009; 최희철·김옥진, 2009). 그러나 최근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스트레스 유발(Stress Generation)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Cole et al., 2006; Hammen, 1991). 스트레스 유발 모델은 우울한 개인의 우울증상과 그들의 행동이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우울증상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Hammen, 1991; 2005). 다시 말하면, 우울한 사람들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건의 발생에

2)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스트레스→우울)는 관점은 스트레스 노출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 노출모델(Stress Exposure)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게 되고, 지속시키며, 재발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Cole et al., 2006).

기여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모델은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김영란·이영호, 2009; 최희철·김옥진, 2009; Cole et al., 2006; Daley et al., 1997; Hankin et al., 2004; Rudolph & Hammen, 1999; Wingate & Joiner, 2004). 결국,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노출모델과 스트레스 유발모델을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의존적 생활사건과 우울의 관계는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을 경험할 수 있고, 우울 증상으로 인해 대인관계관련 생활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우울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스트레스-우울 상호순환 모형의 수립이 가능해진다(최희철·김옥진, 2009: 404).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미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데(최희철·김옥진, 2009; Cole et al., 2006), 이들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상호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우울이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을 다루고 있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일방향적 가정은 일정부분 오류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인 영향이 자살이라는 문제와 결합될 경우 어떠한 관계를 보여줄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상당수의 연구들이 노인(김영주, 2009; 김현순·김병석, 2007; 안준희·전미애, 2009; 장미희·김윤희, 2005; 최령 외, 2010)이나 청소년(강승호 외, 2011; 서한나, 2011; 엄태완 외, 2008; 차미영·강승호, 2010; 최희철·김옥진, 2009; 홍영수·전선영, 2005)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직장여성(김재엽 외, 2009), 동성애자(허정은·박경, 2004), 대학생(하정희·안성희, 2008)과 같이 소수의 특정 대상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몇몇 진행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살 및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살이라는 변수가 갖는 한계이다. 일반적으로 자살관련 행동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분류될 수 있는데(모지환·배진희, 2011), 그 동안의 자살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연구(배진희·엄기욱, 2009; 이소정, 2010; 정익중 외, 201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살생각이나 자살태도만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높은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생각이나 자살태도와 자살시도 및 자살

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모지환·배진희,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을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자살성(Suicidality)으로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인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상호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진술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우울이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우울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접근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상호적임을 가정하고 이 두 변수가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기존의 우울, 스트레스 및 자살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한 대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이 노인과 청소년에 한정되어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직장여성, 동성애자와 같은 특수한 대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서울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강상경, 2010),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활용한 연구(박재연 외, 2010)와 같이 대표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울과 스트레스 및 자살의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살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많은 연구들이 자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상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성인에서 노인까지 대부분의 연령대를 포함하면서도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과의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자살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집단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모지환·배진희, 2011). 그러나 관련된 몇몇의 연구(강상경, 2010; 김현순·김병숙, 2008; 김형수, 2006)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부 하위 집단별 비교를 통한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 및 자살성간의 관계에 대한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연구는 극소수만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의 경로에 대한 성별 및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자살에 대한 집단별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표본자료인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 및 자살성과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 간의 경로가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은 어떠한 경로를 가지는가?
2.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성의 경로가 성별(남, 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3.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성의 경로가 연령집단(성인, 노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자살성(Suicidal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 혹은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살의 개념을 규명해보자면,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그리고 자살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이며 연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현순·김병석,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자살성(Suicidalit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살성(Suicidality)은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으로써 최근 자살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혜성, 2009: 193-194). 즉, 자살사고나 시도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자살의 분명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살의 예측요인으로서 자살사고나 행동의 빈도와 수준이 아닌, 자살사고와 행동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는 자살성(Suicidality)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남석인 외, 2011: 470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사고에서부터 자살행동까지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자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살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다루어지고 있다(박경, 2009).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긴장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심각하게는 자살에 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고 본다(Patricia, 2003).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있는 Izadinia 외(2010)의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상경(2010)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살에 대한 태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노인과 청소년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순·김병석, 2007; 홍영수·전선영, 2005).

한편, 스트레스와 함께 자살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우울이 있다.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근심, 침울, 실패감, 상실감, 무기력 및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Beck, 1974), 자살한 사람의 약 50~87% 가량이 자살 당시에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우울과 자살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강승호 외, 2011; 박경, 2009; 홍영수·전선영, 2005).

2.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발생한다는 스트레스 노출(Stress Exposure)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스트레스가 우울의 선행요인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모델인 스트레스 유발(Stress Generation) 모델에 따르면 그와는 반대로 우울이 스트레스 발생에 선행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Cole et al., 2006; Liu & Alloy, 201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 전술한 두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스트레스 노출 모델에 의하면, 개인이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은 삽화적(episodic)이거나 혹은 급성(acute), 만성(chronic)적인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은 단순히 우울증상을 보이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지속적으로 재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그 대상에 있어서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u & Alloy, 2010: 583 참고). 스트레스 노출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일방향적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Cole et al., 2006).

반면, 스트레스 유발 모델은 Hammen(1991)에 의해 처음 제안된 모델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Hammen(1991)은 스트레스 유발 모델을 통해 우울한 개인이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상과 행동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 사건을 생성하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자가반복적인(self-perpetuating) 순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서 우울증이 재발한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Hammen, 1991)를 제시한 후로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Bottenari et al., 2007; Chun et al., 2004; Joiner et al., 2005). 국내에서도 중년여성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리 외(2009)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관한 두 모델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김영란·이영호, 2009; 최희철·김옥진, 2009; Cole et al., 2006). 즉, 스트레스와 우울이 일방향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임을 표방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Cole 외(2006) 및 최희철과 김옥진(2009)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자기회기 교차지연 모형을 설정하여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는지, 우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혹은 둘 모두가 상호순환적으로 생성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이 상호순환적인 형태로 생성된다는 상호순환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전체 대상에게 확대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이 상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일방향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및 연령집단별 차이

앞서 살펴본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성별이나 연령대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강상경, 2010; 김정미, 2010; 김현순·김병석, 2008; 모지환·배진희, 2011; 이수인·임애덕, 2007; 우채영 외, 2010). 먼저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희철과 김옥진(2009)의 연구에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정미(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수인과 임애덕(2007)의 연구에서는 한부모 남성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성이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집단별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울복지패널을 분석하고 있는 강상경(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로 집단을 분류하여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분류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

났는데, 그 원인이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서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는 김현순과 김병석(2008)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노인에 비해 청소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을 매개하지 않고도 쉽게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요인들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인과 노인집단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는 모지환과 배진희(2011)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 남성은 우울과 스트레스가 모두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만이 자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채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남녀학생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인 관계가 청소년과 한부모라는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결과가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노인보다 우울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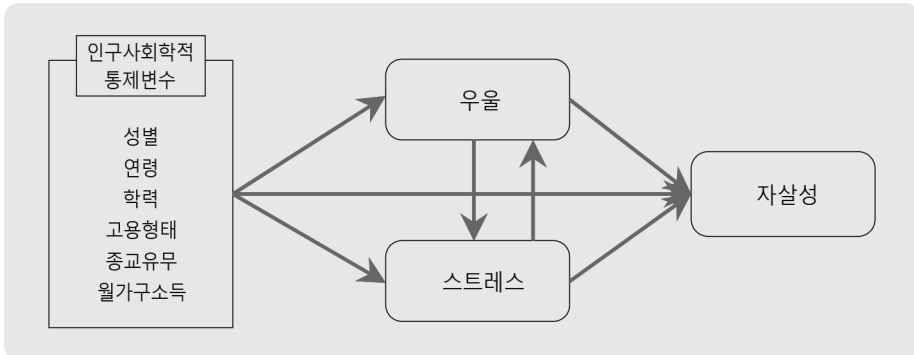
이상에서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와 이들이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바탕으로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와 자살성으로의 경로가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학력, 고용형태, 종교유무, 월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호적인 영향을 분석해볼 수 있는 비재귀모형(non-recursive model)으로 설정하여 모형에 포함하였고, 최종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직접적으로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는 형태의 비재귀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분석 대상 자료의 수집 및 코딩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사회종합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³⁾이다. KGSS는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3) 김상욱 외(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0년
자료번호: A1-2009-0037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방법에 의한 횡단적 조사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study)로서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계량적 원자료 생산을 확대·축적하기 위해 매년 전국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 특히 2009년에는 KGSS의 특별주제모듈로 <정신건강과 자살>이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변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의 KGSS의 조사에 포함된 전체 대상인 1,59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주요변수

가. 자살성(Suicidality)

자살성을 측정하는 변수는 The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의 한국어 버전(Yoo et al., 2006)으로 표준화된 모듈을 활용한 것으로 모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1)/아니오(0)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개월 간 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든지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까?, ② 자해하고 싶었습니까?, ③ 자살에 대하여 생각했습니까?, ④ 자살을 계획했습니까?, ⑤ 자살시도를 했습니까?’와 ‘⑥ 지금까지 살면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의 6문항이다.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자살성의 6개의 문항에 대하여 항목묶음(item-parcel)⁴⁾을 사용하여 3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성에 대한 잠재변수를 생성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원 척도 전체 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1$ 로 나타났다.

4) 척도의 문항이 많을 경우 개별 항목을 지표변수로 설정하는 방법보다는 항목묶음(item parcel)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꾸러미변수를 지표변수로 설정하는 방법을 권장하는데, 꾸러미변수를 사용할 경우 모형이 훨씬 간단해지고 모형추정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196).

나. 우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우울은 PHQ-9(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지난 2주 간 응답자가 겪은 우울 증상에 관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Han et al., 2008).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1)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또는 너무 많이 잠, (2)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3)식욕저하 또는 과식, (4)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5)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또는 절망감, (6)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또는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7)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8)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전부절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9)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또는 어떤 면에서건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의 총 9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범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9개 문항에 대한 항목묶음(item-parcel)을 사용하여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울에 대한 잠재변수를 생성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원 척도 전체 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7$ 로 나타났다.

다.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질문 문항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사업이나 직장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어 분석에서는 역점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더한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3문항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변수를 생성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원 척도 전체 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1$ 로 나타났다.

라. 인구사회학적 통제 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통제 변수로 성별은 남성(0)과 여성(1)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측정된 연령 그대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0)과 대졸 이상(1)로 구분하였고, 고용형태는 비상용직(0)과 상용직(1)로 구분하였다. 종교유무는 종교없음(0)과 종교있음(1)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월가구소득은 소득 없음(0)에서 50만원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여 최대 1,000만원 이상(21)까지로 구분하여 모형에 투입되었다. 월가구소득의 경우 점수가 높아질수록 월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의 경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비재귀경로 모형(non-recursive path modeling)을 설정하였다. 비재귀경로 모형은 전체 경로모형 안에 포함되는 두 변수 간 양방의 관계를 가정하고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비재귀적인 특성을 갖는 두 변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강상경·권태연, 2008; Kline, 2005),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비재귀모형(non-recursive modeling)을 전체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별(남, 녀) 및 연령집단(성인, 노인)에 따라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령집단의 구분은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미만을 성인으로 하고,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여 집단 구분을 실시하였다⁵⁾.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성개념간의 이론적인 인과관계와 상관성의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

5) 일반적으로 노인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은 만 60세 이상,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교실은 만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만 해당된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의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관련 부처에 따라 노인의 연령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경호,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55세에서 65세의 연령기준의 범위에서 중간으로 볼 수 있는 60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였다.

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면서도 변수들 간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이다(김계수, 2008; 배병렬, 2006). 분석을 위해서 결측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absolute fit index)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인 IFI(Incremental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 검증한다. RMSEA는 0.08 이하이면 적합하고 .010 이상일 경우 모형적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IFI와 CFI는 0.90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모형의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과 주요 변수의 특징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48.1%이고 여성이 51.9%로 나타났고, 연령은 18세부터 94세의 분포로 평균 43.51(SD=15.25)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약 50%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고, 고용행태는 전체 응답자 중 76.3%가 상용직이라고 응답하였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58.8%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스트레스의 경우 평균 점수가 7.21(SD=2.08)로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우울은 평균 점수가 13.47(SD=4.49)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살성 점수는 평균 0.45(SD=1.01)점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및 주요 변수의 특징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성별(n=1,599)	남성(0)	769	48.1	
	여성(1)	830	51.9	
연령(n=1,593)	Mean : 43.51세 / SD : 15.25 / 최소값 : 18 / 최대값 : 94			
학력(n=1,598)	고졸 이하(0)	800	50.1	
	대졸 이상(1)	798	49.9	
고용형태(n=657)	비상용직(0)	156	23.7	
	상용직(1)	501	76.3	
종교유무(n=1,599)	종교없음(0)	658	41.2	
	종교있음(1)	941	58.8	
변수 명(점수범위)	Mean	SD	최소값	최대값
스트레스(3-12점)	7.21	2.08	3	12
우울(9-36점)	13.47	4.49	9	36
자살성(0-6점)	0.45	1.01	0	6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및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투입될 주요 측정변수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및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70이상인 것이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서인균·고민석, 2011; 이수인·임애덕, 2007).

표 2.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성별	1														
2. 연령	.041	1													
3. 학력	-.115**	-.461**	1												
4. 고용형태	-.188**	-.057	.216**	1											
5. 월가구소득	-.041	-.248**	.331**	.264**	1										
6. 종교유무	.151**	.156**	-.034	-.061	-.012	1									
7. 스트레스	-.021	-.006	-.072**	-.079*	-.160**	-.054*	1								
8. 스트레스2	-.139**	-.135**	.053*	.112**	.000	-.062*	.559**	1							
9. 스트레스3	.131**	-.018	-.022	-.032	-.012	.016	.420**	.346**	1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0. 우울1	.063**	-.012	-.024	-.077*	-.077*	-.015	.278**	.259**	.235**	1					
11. 우울2	-.034	-.027	-.015	-.099*	-.105**	-.053*	.298**	.267**	.256**	.611**	1				
12. 우울3	.072**	-.058*	-.010	-.142**	-.087**	-.034	.306**	.256**	.286**	.660**	.677**	1			
13. 자살성1	.033	.054*	-.117**	-.122**	-.115**	-.020	.198**	.174**	.222**	.249**	.319**	.385**	1		
14. 자살성2	.049	-.044	-.072**	-.124**	-.073**	.001	.178**	.193**	.223**	.235**	.284**	.375**	.679**	1	
15. 자살성3	.054*	.030	-.093**	-.084*	-.069*	.031	.088**	.103**	.102**	.161**	.143**	.183**	.378**	.405**	1

*p<.05, **p<.01

다음으로 주요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chi^2 = 88.406(df=24)$, $p=.000$, $RMSEA=.041$, $ILI=.987$, $CFI=.987$ 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3>에는 측정 모형의 주요 잠재변수들의 요인적재량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였다.

표 3. 주요 잠재변수의 요인적재량 및 상관관계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C.R
스트레스	스트레스1	1.000	.786	-
	스트레스2	.930	.693	19.155***
	스트레스3	.729	.542	17.090***
우울	우울1	.906	.763	32.117***
	우울2	.890	.787	33.040***
	우울3	1.000	.868	-
자살성	자살성1	1.000	.819	-
	자살성2	.910	.830	24.572***
	자살성3	.516	.472	17.307***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B	β	C.R
스트레스 ↔ 우울		.474	.481	13.523***
우울 ↔ 자살성		.258	.477	13.928***
스트레스 ↔ 자살성		.078	.325	9.420***

***p<.001

3.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의 경로분석(연구문제 1)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을 검토해보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 및 자살성과의 경로모형에 대한 분석(6)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chi^2=338.083(df=66)$, $p=.000$, RMSEA=.051, IFI=.954, CFI=.954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의 주요한 경로에 대한 경로계수는 다음의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우선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서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beta=-.552$, $p>.05$)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beta=.813$,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이 자살성에 가는 직접 경로($\beta=.406$, $p<.001$)와 스트레스가 자살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beta=.128$,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거쳐서 자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가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스트레스 노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비재귀모형의 모델추정가능성 조건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모델에 외생변수를 추가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비재귀모델 속에 설정된 경로들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경로를 삭제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문수백, 2009: 257-258). 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심사과정에서 모델추정가능성이 밝혀진 경우라면 첫 번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재귀모델을 사용한 강상경과 권태연(2008)과 이현주와 강상경(2011)의 연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통제변수와 주요 잠재변수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로를 최종 모델에서 삭제(fixed '0')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서 삭제된 경로는 성별→스트레스, 성별→우울, 고용형태→스트레스, 학력→우울, 연령→우울, 연령→자살성, 종교유무→자살성이다.

표 4.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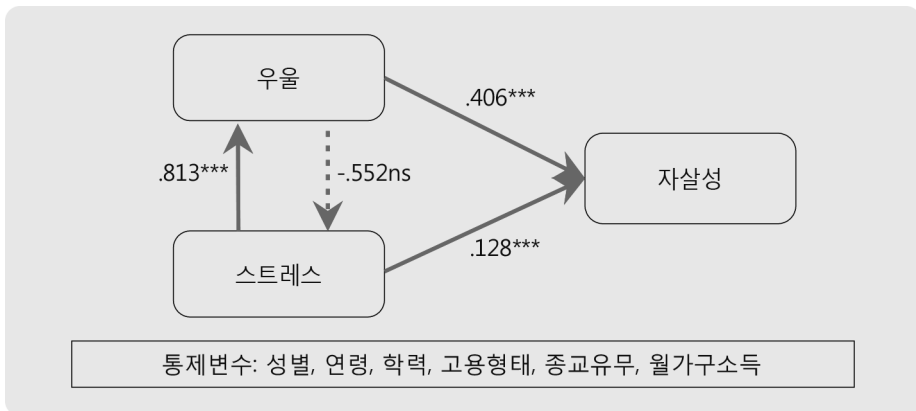
경로	B	β	S.E.	C.R.
우울 → 스트레스	-.246	-.552	.185	-1.322
스트레스 → 우울	1.823	.813	.458	3.978***
우울 → 자살성	.100	.406	.009	11.457***
스트레스 → 자살성	.071	.128	.020	3.547***
고용형태 → 우울	-.551	-.159	.160	-3.432***
월가구소득 → 스트레스	-.028	-.210	.009	-3.173**
연령 → 스트레스	-.006	-.148	.002	-2.777**
학력 → 자살성	-.065	-.089	.020	-3.274***

모형적합도 : $\chi^2=338.083(df=66)$, $p=.000$, RMSEA=.051, IFI=.954, CFI=.954

*** $p<.001$, ** $p<.01$, * $p<.05$

주: 통제변수와 주요변수와의 경로는 유의한 경로의 계수만 제시하였음.

그림 2. 연구모형에 대한 표준화된 경로계수



4.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의 경로의 성별 차이 (연구문제 2)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의 비재귀경로 모형을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간 비교를 통해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비재귀경로 모형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의 경로가 남녀 집단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과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남녀 집단간에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제약 모형($\chi^2=300.487$, $df=118$, $p=.000$, $IFI=.969$, $CFI=.968$, $RMSEA=.031$)이 제약 모형($\chi^2=498.058$, $df=146$, $p=.000$, $IFI=.943$, $CFI=.942$, $RMSEA=.039$)에 비해 모형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χ^2 차이와 CFI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비교 검증(7)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의 차이 검증에서 $\chi^2=197.571(SD=28)$, $p=.001$ 이고 CFI값의 차이가 .026으로 기준치로 설정한 .01보다(Cheung & Rensvold, 2002) 큰 것으로 나타나 무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이 서로 다른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 간의 경로가 남녀 집단 간에 다르다는 무제약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5. 연구모형에 대한 남녀집단의 모형적합도 비교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χ^2	df	p-value	IFI	CFI	RMSEA	$\Delta\chi^2$	ΔCFI
무제약 모형	300.487	118	.000	.969	.968	.031	197.571(28)***	.026
제약 모형	498.058	146	.000	.943	.942	.039		

*** $p<.001$

다음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무제약 모형의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를 다음의 <표 6>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남.

7) 일반적으로 모형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카이제곱차이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두 모형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덜 제약된 모형을 선호하여 유의미한 p값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서는 CFI(ΔCFI)값을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Cheung & Rensvold, 2002; De Jong et al., 2007; Maanse & John, 2008; Woehr et al., 2007).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고려해 χ^2 차이 검정과 CFI값의 차이를 함께 비교하였으며, CFI 차이 값의 기준은 Cheung과 Rensvold(2002) 연구에서 제시된 0.01로 하였다.

$\beta=-.015, p>.05$, 여: $\beta=-.025, p>.05$),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beta=.478, p<.001$, 여: $\beta=.493, p<.001$).

표 6. 연구모형의 남녀집단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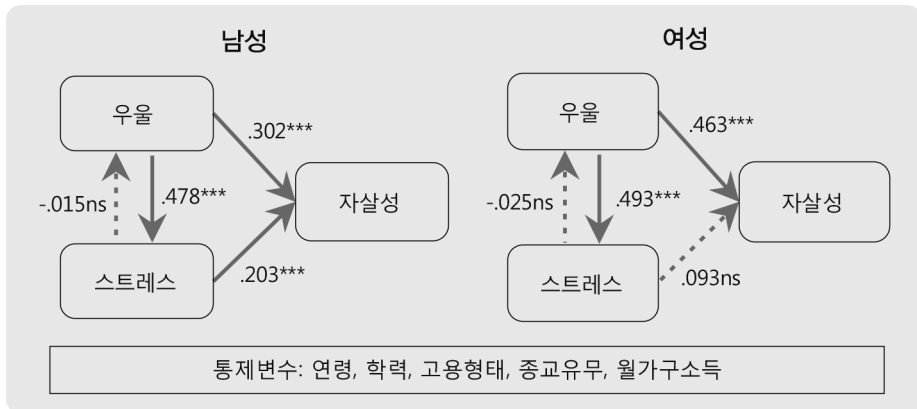
경로	남성(n=769)				여성(n=830)			
	B	β	S.E.	C.R.	B	β	S.E.	C.R.
우울 → 스트레스	.257	.478	.028	9.235***	.190	.493	.019	10.234***
스트레스 → 우울	-.028	-.015	.060	-.465	-.065	-.025	.056	-1.145
우울 → 자살성	.084	.302	.014	6.055***	.106	.463	.011	9.707***
스트레스 → 자살성	.105	.203	.026	4.025***	.055	.093	.029	1.900
월가구소득 → 우울	-.051	-.196	.011	-4.794***	-	-	-	-
월가구소득 → 스트레스	-	-	-	-	-.011	-.084	.005	-1.987*
학력 → 자살성	-.062	-.085	.028	-2.204*	-.072	-.096	.028	-2.557*
고용형태 → 자살성	-.140	-.144	.050	-2.788**	-	-	-	-

모형적합도 : $\chi^2=300.487, df=118, p=.000, IFI=.969, CFI=.968, RMSEA=.031$

※ 통제변수와 주요변수와의 경로는 유의한 경로의 계수만 제시하였음.

*** $p<.001$, ** $p<.01$, * $p<.05$

그림 3. 남녀집단에 대한 표준화된 경로계수



그리고 자살성에 대한 우울과 스트레스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beta=.302, p<.001$)과 스트레스($\beta=.203, p<.001$)가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beta=.463, p<.001$)은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스트레스의 효과($\beta=.093,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서 남녀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의 관계에 대한 남녀 집단의 분석결과는 앞서 전체 대상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 1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스트레스 노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통해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와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우울, 자살성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의 경로의 연령집단별 차이(연구문제 3)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의 비재귀경로 모형을 ‘성인, 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재귀경로 모형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의 경로가 연령집단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과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연령집단간에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제약 모형($\chi^2=392.394, df=120, p=.000, IFI=.950, CFI=.949, RMSEA=.038$)이 제약 모형($\chi^2=516.484, df=147, p=.000, IFI=.932, CFI=.931, RMSEA=.040$)에 비해 모형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χ^2 차이와 CFI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의 차이 검증에서 $\chi^2=124.135(SD=27), p=.001$ 이고 CFI 값의 차이가 .018로 기준치로 설정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무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이 서로 다른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 간의 경로가 연령별 집단간에 다르다는 무제약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7. 연구모형에 대한 연령집단별 모형적합도 비교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χ^2	df	p-value	IFI	CFI	RMSEA	$\Delta\chi^2$	ΔCFI
무제약 모형	392.349	120	.000	.950	.949	.038	124.135(27)***	.018
제약 모형	516.484	147	.000	.932	.931	.040		

*** $p < .001$

다음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무제약 모형의 성인과 노인 집단의 경로계수를 다음의 <표 8>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인과 노인 모두에서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성인: $\beta = -.022$, $p > .05$, 노인: $\beta = -.024$, $p > .05$),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인: $\beta = .477$, $p < .001$, 노인: $\beta = .491$, $p < .001$). 그리고 자살성에 대한 우울과 스트레스의 직접효과에서는 성인과 노인 모두에서 우울(성인: $\beta = .430$, $p < .001$, 노인: $\beta = .313$, $p < .01$)과 스트레스(성인: $\beta = .102$, $p < .01$, 노인: $\beta = .196$, $p < .05$)가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집단간에는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성별 집단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성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였을 때도 남녀로 구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유발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의 관계에서는 성인과 노인 모두에서 동일하게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동시에 우울이 스트레스를 통해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8. 연구모형의 연령집단별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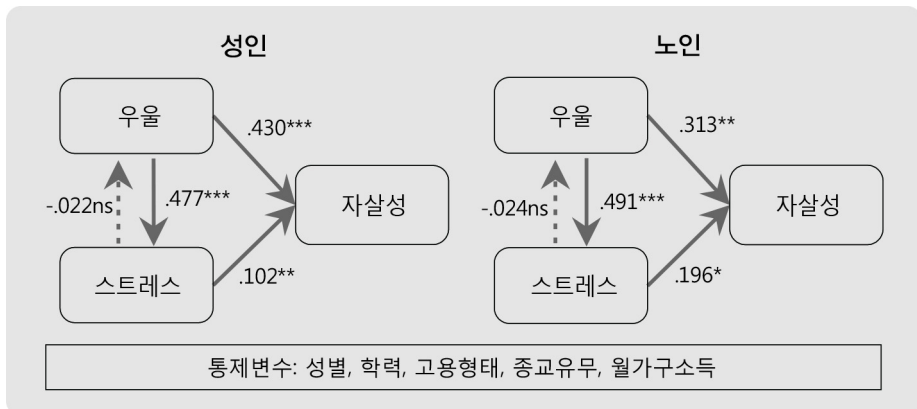
경로	성인				노인			
	B	β	S.E.	C.R.	B	β	S.E.	C.R.
우울 → 스트레스	.209	.477	.015	13.745***	.245	.491	.045	5.416***
스트레스 → 우울	-.049	-.022	.027	-1.825	-.047	-.024	.092	-.512
우울 → 자살성	.107	.430	.009	11.464***	.067	.313	.024	2.850**
스트레스 → 자살성	.058	.102	.022	2.623**	.085	.196	.039	2.157*
고용형태 → 우울	-.425	-.118	.156	-2.718**	-	-	-	-
월가구소득 → 우울	-.032	-.103	.010	-3.249***	-.061	-.176	.026	-2.364*
월가구소득 → 스트레스	-.022	-.163	.004	-5.349***	-	-	-	-
학력 → 자살성	-.066	-.088	.021	-3.110**	-.214	-.204	.101	-2.116*
고용형태 → 자살성	-.083	-.092	.037	-2.221*	.392	.609	.083	4.703***

모형적합도 : $\chi^2=392.394$, $df=120$, $p=.000$, $IFI=.950$, $CFI=.949$, $RMSEA=.038$

※ 통제변수와 주요변수와의 경로는 유의한 경로의 계수만 제시하였음.

*** $p<.001$, ** $p<.01$, * $p<.05$

그림 4. 연령집단에 대한 표준화된 경로계수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와 자살성간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재귀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이들 경로가 성별과 연령집단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재귀경로 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간의 비재귀경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지 않은 반면, 스트레스가 우울로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직접적인 경로에서는 두 경로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동시에 스트레스는 우울을 거쳐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인 영향을 가정하였지만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전체 집단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과의 관계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강승호 외, 2011; 김재엽 외, 2009; 김현순·김병석, 2007; 박재연 외, 2010; 서한나, 2011; 우채영 외, 2010; 이미애·남기민, 2007; 차미영·강승호, 2010; 하정희·안성희, 2008)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트레스 노출모델의 관점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관계와 자살성간의 비재귀경로 모형에 대한 성별간 차이(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문제 1의 결과와는 반대로 남녀 모두에서 우울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직접효과에서도 성별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의 직접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는 우채영 외(2010)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우채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남녀학생 모두에서 유의했으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여학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채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 노인을 포함한 대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서의 차이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의 전 연령대를 포함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관련한 남녀집단간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문제 3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비재귀경로 모형에 대한 성인과 노인에게 대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문제 2의 성별에 대한 다집단분석의 결과와는 동일한 형태이자 연구문제 1과는 상반된 결과인 우울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과 노인 모두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직접효과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살성에 우울이 스트레스를 거쳐서 미치는 영향과 우울과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성인과 노인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령집단에 대한 분석의 결과도 연구문제 2의 결과와 같이 전체 집단이 아닌 성인과 노인이라는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재귀경로 모형의 분석결과가 전체 대상자와 남녀집단 및 연령집단에서 서로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로 영향을 미쳤으나 남녀집단 및 성인·노인집단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상의 결과가 본 연구에서 가정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인 영향보다는 일방향성을 가진 형태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경로의 차이는 우울 및 스트레스와 자살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결과가 이토록 상반되게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우울과 스트레스라는 변인의 관계가 성별

이나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유발 모델과 관련한 문헌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있는 Liu와 Alloy(2010)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유발 모델에서 우울증상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남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우울증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인지적인 측면과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를 남성들보다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우울수준으로 인해 유발되는 인지적이거나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Liu & Alloy, 2010: 588). 그리고 스트레스 노출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우채영 외(2009)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정미(2010)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전체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남녀로 구분할 경우 하위 집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집단간 차이와 관련하여 연령대가 본 연구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희철과 김옥진(2009)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갖는 효과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갖는 효과보다 더 컸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윤희 외(2008)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갖는 효과가 우울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갖는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두 연구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연구의 결과는 우울과 스트레스 변인간의 관계의 강도가 청소년시기와 초등학교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사하고 있다(최희철·김옥진, 2009). 이상에서 살펴본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간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 이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대부분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이라는 점과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가 하위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Safford et al., 2007; Shih, 2006)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될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구 표본 집단 및 세부적인 하위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우울과 스트레스 및 자살 변인간

의 관계에서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성별 및 연령집단별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경제적인 문제, 사업이나 직장문제, 가족으로 인한 문제 등 아주 포괄적인 내용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내용에 따라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받는 스트레스가 다를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사업이나 직장내 스트레스가 더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추가적인 분석(t-test)으로 스트레스 문항에 대한 성별간 평균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이나 직장문제 스트레스는 남성이 더 높았고, 가족으로 인한 문제 스트레스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과 노인을 비교했을 때는 모든 문항에서 성인이 노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별이나 연령집단별로 스트레스의 수준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에서의 차이가 우울과의 경로차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비재귀 모형이 추정 가능한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차수조건과 계수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문수백, 2009: 245-260).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에 관한 비재귀모형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형추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2차 자료임을 감안해서 통제변수와 주요 잠재변수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fixed '0')하는 기존 선행연구(강상경·권태연, 2008; 이현주·강상경, 2011)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전체 경로모형에서 총 7개의 경로를 삭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특정 경로를 삭제함으로써 비재귀 모형이 판별되도록 설정하는 작업이 통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나, 판별을 목적으로 원래 설정한 모형에 변화를 가하는 것에는 반드시 연구자의 가설이나 관련된 이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Kline, 2005). 왜냐하면, 이러한 모형의 수정작업의 결과에 따라 연구모형의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투입된 통제변수의 종류 및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우울, 스트레스, 자살성) 간의 경로가 달라짐에 따라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우울 및 스트레스와 이론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통제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에 대한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검증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에서의 결과와 하위 집단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과 스트레스 및 자살 변인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하위 집단별 비교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위 집단별로 검토할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에 관련된 연구에서 기존의 스트레스 노출모델을 고수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유발모델의 관점을 고려한 두 모델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서베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를 논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성간의 경로의 성별과 연령집단별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이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울수준을 낮춰줄 수 있는 개입과 더불어 우울증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을 더 많이 만듦에 따라 스트레스 유발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울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인과 노인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우울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적·외적 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 집단의 경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모지환·배진희, 2011). 따라서 일반 성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주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

다. 따라서 종단적 자료를 통한 추후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가정과 자살성간의 경로분석이 처음 시도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표집 자료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재귀모형의 경우 모형에 투입되는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에 따라 주요변수의 상호적 관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는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모형에서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연령집단을 성인과 노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발달주기별 집단 구분을 바탕으로 한 세분화된 하위 집단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와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비교·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병선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에서 조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보건사회복지, 청소년 복지이며, 현재 정신사회재활 서비스 사정 및 성과 평가 척도개발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이 진행 중에 있다.

(E-mail: ibyulghu@hanmail.net)

참고문헌

- 강상경(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pp.67-100.
- 강상경, 권태연(2008). 우울과 음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긴장감소가설과 독성가설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6, pp.253-280.
- 강승호, 문은식, 차미영(2011).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25(2), pp.277-293.
- 김경호(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5(1), pp.553-582.
- 김계수(2008).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영란, 이영호(2009). 우울 증상과 사회적 기술이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pp.153-170.
- 김영주(2009). 남녀별 독거노인과 동거노인의 건강습관,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3, pp.333-344.
- 김윤희, 권석만, 서수균(2008).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우울/불안의 종단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4), pp.57-79.
- 김정미(2010). 남녀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완벽주의와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차이 검증. *상담학연구*, 11(2), pp.809-829.
- 김재엽, 남석인, 최선아(2009).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 TSL 대처방식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pp.375-308.
- 김현순, 김병석(2007).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pp.801-818.
- _____, _____. (2008).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8(2), pp.325-343.
- 김형수(2006). 생애주기별 자살현황과 예방대책: 노인과 청소년 자살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4, pp.271-292.
- 김혜성(2009).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pp.191-217.

- 남석인, 최권호, 민지아(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자살성 남녀 비교: 서대문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pp.467-491.
- 모지환, 배진희(2011). 자살행동 영향 요인: 성별, 연령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pp.121-145.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경(2009). 부정적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및 우울과의 관계 고찰.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 pp.1-16.
- 박재연(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이즌증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pp.249-272.
- 박재연, 임연옥, 윤현숙(2010).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41(4), pp.81-105.
- 보건복지가족부(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 배병렬(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 이해와 활용. 서울: 청람.
- 배진희, 엄기욱(2009). 노인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9(4), pp.1427-1444.
- 서인균, 고민석(2011).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1(1), pp.127-157.
- 서한나(2011).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pp.629-646.
- 안준희, 전미애(2009).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소질 모델(Stress-diathesi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pp.489-511.
- 엄태완, 강명진, 최정순(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회적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2, pp.5-30.
- 우채영, 박아칭, 정현희(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pp.19-38.
- 이미애, 남기민(2007).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매개로 한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4, pp.307-325.

- 이민아, 김석호, 박재현, 심은정(2010). 사회적 관계 내 자살경험과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2), pp.61-84.
- 이소정(2010).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11, pp.1-19.
- 이수인, 임애덕(2007). 한부모의 과거 부부관계의 질, 자녀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41(4), pp.128-163.
- 이유리, 권정혜, 이민수(2009). 중년여성 우울증 환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특성과 재발. *인지행동치료*, 9(2), pp.35-47.
- 이현주, 강상경(2011).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pp.179-203.
- 장미희, 김윤희(2005).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4(1), pp.33-42.
-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2010).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pp.222-251.
- 차미영, 강승호(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교육학연구*, 48(2), pp.93-122.
- 최령, 문현주, 황병덕(2010). 만성질환이 노인들의 스트레스인지, 우울증상 경험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4(2), pp.73-84.
- 최인, 김영숙, 서경현(2009).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5, pp.33-56.
- 최희철, 김옥진(2009).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노출모형, 스트레스 생성모형, 스트레스-우울 상호순환 효과모형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3), pp.401-429.
- 하정희, 안성희(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pp.1149-1171.
- 허정은, 박경(2004).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自殺思考)간의 관계. *심리치료*, 4(1), pp.57-72.
- 홍영수, 전선영(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pp.125-149.
- 통계청(2010). 2010년 사망원인 통계. <http://www.kostat.go.kr>에서 인출

- Beck, A. T.(1974).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NY: John wiley and Sons.
- Bottenari, K. A., Roberts, J. E., Kelly, M. A.R., Kashdan, T. B., Ciesla, J. A. (2007).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attachment style on stress generation among clinically depressed individual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pp.179-188.
- Cole, D. A., Nolen-Hoeksema, S., Girgus, J., Paul, G.(2006). Stress exposure and stress generation in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A latent trait-state-error approach to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pp.40-51.
- Cheung, G. W., Rensvold, R. B.(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pp.233-255.
- Chun, C. A., Cronkite, R. C., Moos, R. H.(2004). Stress generation in depressed patients and community control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pp.390-412.
- Daley, S. E., Hammen, C., Burge, D., Davila, J.(1997). Predictors of the generation of episodic 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late adolescent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pp.2251-2259.
- De Jong, M. G., Steenkamp, J.-B. E. M., Fox, J. P.(2007). Relax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using a hierarchical IRT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 pp.260-278.
- Hammen, C.(1991). Generation of stress in the course of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pp.555-561.
- _____ (2005). Stress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pp.293-319.
- Han, C. Jo, S. Kwak, J. Pae, C. Steffens, D. Jo, I., Park, M.(2008). Validation of the 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Korean Vers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AGE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49, pp.218-223.

- Hankin, B. L., Roesch, L., Mermelstein, R.(2004). Depression, stressors, and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ce: examination of a transactional stress generation hypothesis in a multiwave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ural and Cognitive Therapies*. Kobe, Japan.
- Hu, L.,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pp.1-55.
- Izadinia, N., Amiri, M., Jahromi, R. G., Hamidi, S.(2010).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s, depression, anxiety, resiliency, daily stresses and mental health among Teheran university student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pp.1515-1519.
- Joiner, T. E. Jr., Wingate, L., Oatamendi, A.(2005). An interpersonal addendum to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Hopelessness as a stress and depression generat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pp.649-664.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iu, R. T., Alloy, L. B.(2010). Stress generation in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pp.582-593.
- Maanse, H., John, S. B.(2008). Cross-ethnic measurement invariance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 for individuals with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Social Work Research*, 32(2), pp.71-78.
- OECD(2010). *Suicides*. 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에서 인출.
- Osgood, N. J., McIntosh, J. L.(1986). *Suicide and the Elderly*. Greenwood Press.
- Patricia, A. H.(2003). Evidenced-based protocol; Elderly suicide-Secondary preven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9, pp.6-17.
- Rudolph, K. D., Hammen, C.(1999). Age and gender as determinants of stress

exposure, generation, and reactions in youngsters: a transactio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70, pp.660-677.

- Safford, S. M., Alloy, L. B., Abramson, L. Y., Crossfield, A. G.(2007). Negative cognitive style as a predictor of negative life events in depression-prone individuals: A test of the stress generation hypothe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9, pp.147-154.
- Shih, J. H.(2006). Sex differences in stress generation: An examination of sociotropy/autonomy,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pp.434-446.
- Woehr, D. J., Arciniega, L. M., Lim, D. H.(2007). Examining work ethic across populations: A comparison of the multidimensional work ethic profile across three diverse cultur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7(1), pp.154-168.
- Wingate, L. R., Joiner, T. E. J.(2004). Depression-related stress generation: a longitudinal study of black adolescents. *Behavior Therapy*, 35, pp.247-261.
- Yoo, S. W., Kim, Y. S., Noh, J. S., Oh, K. S., Kim, C. H., Namkoong, K., et al.(2006).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Anxiety and Mood*, 2(1), pp.50-55.

The Path Analysis for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that Affect the Suicidality:

Comparison of Sex and Age Group

Park, Byung Sun

(Daegu Haany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and its path with suicidality using the 'Korea General Social Survey' for people aged 18 and over (KGSS, 2009). For this, this study set up the mutual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stress based on the Stress Exposure Model and the Stress Generation Model and Non-recursive path model, according to which stress and depression directly effect on suicidality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author conducted multi-group analysis to make comparison in terms of age and sex on this mode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whole group, the Stress Exposure Model was more appropriate because the direct path of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and stress path 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Second, the male-female comparison revealed that male's path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and, for this reason, Stress Generation Model was deemed more appropriate for males. For females, however, only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rd, the age group comparison showed that among adults and the elderly, as was the case with males,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s suggests a need for paying more attention to each of subgroups wh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impact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ality.

Keywords: Stress, Depression, Suicidality, Non-recursive Path Modeling, Multigroup Analysis